

**Vol. 6**

2024.06. 14.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7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소영은전임 yesoh@hjcustoms.co.kr

##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

## I. 법령 개정사항

### 1.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제33조의2제4항 중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 시행일

'24.05.01.

---

## I. 법령 개정사항

###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 중 "2024년 4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 (3) 시행일

'24.05.01.

## I. 법령 개정사항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4월 30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 (3) 시행일

'24.05.01.

## I. 법령 개정사항

### 4. 「관세법 제 71 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 71 조제 1 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농수산물 등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양배추 및 포도는 2024 년 5 월 10 일부터 2024 년 6 월 30 일까지 각각 0 퍼센트 및 5 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당근, 건조한 김 및 조미김은 2024 년 5 월 10 일부터 2024 년 9 월 30 일까지, 배추는 2024 년 5 월 10 일부터 2024 년 10 월 31 일까지, 코코아두는 2024 년 5 월 10 일부터 2024 년 12 월 31 일까지 각각 0 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

#### (3) 시행일

'24.05.10.

## II. 입안예고

### 5.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계획된 수입물량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계획수입 신청 대상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 및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됨에 따라 계획수입 신청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수입식품의 최초 정밀검사 대상 농약과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에 대해 최근 5 년간의 검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6조 및 별지 서식 제1호	계획수입 신청대상을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수입신고하는 자사제품제조용 원료 중 식약처 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수산물 제외), 식약처 장이 인정한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품목,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로 확대함에 따라하고 신청 대상에 따른 제출서류 명확화
별표 1	농·임산물 중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말레이 시 아산 후추 및 칠레산 월굴(블루베리)/열매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별표5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113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18종을 추가하고, 113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3종을 제외함

#### (3) 시행일

'24.06.14.

I. 법령 개정사항

6.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개정(제 83 조 용도세율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프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제2조) - 덤프방기관세 부과 물품인 ‘인조대리석용 수산화알루미늄(2818.30-9000)’이 용도세율 적용으로 사후관리 대상 지정 2)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승인물품으로 명확화(제8조) - 관세법 개정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세관장 승인’ 법 적용거 마련(法 § 83조① 단서)
사후관리 규제 완화	1) 관세법 제93조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제3조) 2)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제10조) -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 -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사본 제출 생략 3)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 폐기 승인신청은 해당 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능(제13조, 제14조) 4) 제1214.90-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별표1의 가 → 별표1의 나)
고시 규정 보완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제35조)

(3) 시행일

’24.05.13.

I. 법령 개정사항

## 7.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 140 조제 7 항 개정사항\* 및 적극행정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 통로 등 제한으로 사회안전, 국민보건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하역을 제한할 수 있음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5조제3항	검사대상화물과 특송물품의 하선장소 명확화 - 검사대상화물: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지정 보세창고 - 특송화물: 특송물품 통관 세관지정장치장 또는 특송업체의 자체시설
제16조의2 신설	「관세법」제140조제7항에 따라 하역제한 대상물품 규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는 폐기물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하역제한을 요청하는 품목
제21조제1항	항공 특송화물 입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완화 - 항공 특송화물의 입항 적재화물목록을 항공기가 입항하기 1 시간 전까지에서 30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
용어 정비	법제처의 행정규칙 용어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선복’을 ‘적재공간’, ‘시봉’을 ‘봉인실시’, ‘선(기)용품’을 ‘선박(항공기)용품’으로 용어 정비

### (3) 시행일

’24.06.12.



## I. 법령 개정사항

## 8.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 (1) 공고

관세법 제 241 조 제 4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248 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 34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 (2) 주요 내용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양배추	신선한 것	0704.90-1000	2024.5.10. ~2024.6.30.
포도	신선한 것	0806.10-0000	
당근	신선한 것	0706.10-1000	2024.5.10. ~2024.9.30.
김	식용의 건조한 것	1212.21-1010	
	식용의 조제한 것	2008.99-5010	
배추	신선한 것	0704.90-2000	2024.5.10. ~2024.10.31.
코코아두	생 것	1801.00-1000	2024.5.10. ~2024.12.31.

## (3) 시행일

'24.05.10.

## II. 입안예고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 마약류 수출입업자의 자격요건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2조 제2호 라목 및 마목	‘알카로이드’를 ‘알칼로이드’로 오기정정하고,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를 ‘해를 끼칠 우려’로 쉬운 용어로 자구수정
제6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상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마약류 수출입업자 자격요건을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한 자로 수정
제44조 제1항 제2호 차목	마약류취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류관리자에 대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법적 제재 처분 가능

## II. 입안예고

###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20232 호, '24.2.6. 일부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인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 킬로그램에서 1 톤으로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20232 호, '24.2.6. 일부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인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 킬로그램에서 1 톤으로 조정.

#### (3) 의견수렴기간

'24.07.01.

## II. 입안예고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무시동 히터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무시동 히터” 추가 ([별표 6])

#### (3) 의견수렴기간

'24.07.10.

## II. 입안예고

## 4. 「관세법 제 226 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 및 유사 제도(통합공고)와의 통일성 강화하고자 함. 더불어 세관장확인대상 지정을 위한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 강화하고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7조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통합공고에 규정된 요건확인 면제의 예외 법령 중 세관장확인 고시에 누락된 일부 법령 반영 (종전 13개 → 변경 18개)
제8조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 (요청 품목수 10개 이하)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산업부 고시)에 사전 반영,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별표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요건 신설 반영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 협의사항 반영 등 (수출) 5개 법령 2개 품목 추가, 34개 품목 변경, 1개 품목 제외 (수입) 13개 법령 31개 품목 추가, 232개 품목 변경, 5개 품목 제외

## (3) 의견수렴기간

'24.06.19.

## II. 입안예고

### 5. 「전자파적합성 기준」 입안 계획

#### (1) 입안 이유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3조 제4호 및 제5호	A급 기기/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 추가
제24조, 별표21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

#### (3) 의견수렴기간

'24.07.09.

### Ⅲ. 조세심판사례

##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정행위 과소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7.7.15.부터 2022.3.7.까지 독일 소재 수출자등으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A(청구법인의 수입통관 대행사)에 대한 관세조사실시 결과, 당초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는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 및 독일 소재 수출자등과 공모하여 송품장에 허위로 원산지신고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를 삽입한 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다. 처분청은 2023.4.1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관세법」제270조, 「형법」제231조 및 제234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 44 조 위반으로 고발·송치한 후, 2023.5.1. 쟁점물품에 적용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 원을 경정·고지 하였음.
- 라. 이에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가산세에 불복하여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협정세율 적용절차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해당하고, 협정세율 적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특혜제도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자에게 각별한 주의 의무가 있고 수입 업무를 대리인 등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3) 결정일

2024.04.30 (조심2023관0090)

### Ⅲ. 조세심판사례

2.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판매한 부품 중 쟁점부품이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무상수리에 사용된 경우, 청구법인이 딜러사로부터 청구받은 쟁점부품 가격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청구한 쟁점부품 가격의 차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일본 소재 A 주식회사(이하 “쟁점수출자”)로부터 자동차(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여 딜러사들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데, 쟁점물품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이후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무상 수리되었음.
- 나. 딜러사들은 하자보증대상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상 구매한 자동차부품을 사용하여 무상 수리 후, 무상수리에 사용된 부품 (이하 “쟁점부품”)의 구매가격과 공임(이하 “쟁점수리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보전받았음.
- 다. 청구법인은 딜러사들에게 쟁점수리금액을 우선 지급 후, 쟁점부품의 수입가격과 당초 딜러사들에게 쟁점부품을 판매할 때 소요되었던 국내 운송비 등 제반 비용 및 공임 등(이하 “쟁점보전금액”)을 쟁점수출자에게 청구하여 쟁점수출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았음.
- 라. 처분청은 쟁점수리금액과 쟁점보전금액과의 차액을 「관세법」 상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22.1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가산세 등 합계 000 원을 경정·고지하였음.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부과처분 취소

딜러사가 쟁점부품을 하자보증에 사용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사후적으로 쟁점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딜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같은 결과로 하였을 뿐 수출자나 청구법인에게 추가적 손실·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하자보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3) 결정일

2023.05.31. (조심2022관0042)



### Ⅲ. 조세심판사례

3. 국제무역선등에 선박용품등을 공급하는 청구법인이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선박용품 등 적재 이행완료 보고' 등을 3 회 이상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관세법 제 224 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선박용품 적재 후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 이행완료 보고를 국제무역선의 출항허가 시점까지 이행하여야 함에도 기한 경과 후 보고하는 등 총 2 회의 '출항허가 전 적재 완료 보고 미이행'으로 2022.10.19., 2023.6.22.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경고처분 받았음. 또한, 2022.11.18. 선박용품 적재허가를 받은 후, 기한 경과 후 취하 신청을 하여, 2022.12.8. 처분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

나. 위 경고처분 관련하여 업무정지 대상인 청구법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2023.6.27. 청문실시 통지를 송부 후 2023.7.19. 청문을 실시하였고, 2023.7.27. 청문을 종결하였음.

다. 처분청은 2023.8.10.부터 2023.8.14.까지 행정제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법인의 행정제재(영업정지) 처분 여부, 처분 하향조정 적용 등 대하여 심의하여, 2023.8.16. 청구법인에게 '업무정지 10 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하였음.

라. 처분청은 2023.9.5. ① 청구법인의 의견진술서와 관련 이 사건 위반 행위는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② 이 건의 과징금 감경 적용 여부는 처분청 행정제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결과 과징금 가중 또는 감경에 비해당함을 청구법인에 회신하고 과징금 000 원을 부과하였음.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관세법 및 관련고시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보고 미이행은 경고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3 회 이상 경고처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 과징금 경감 요소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3) 결정일

2024.04.23. (조심2023관0114)

### Ⅲ. 조세심판사례

#### 4.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에 있어 부정한 행위로 품목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20.9.23.부터 2023.3.14.까지 중국 소재 000 로부터 ‘모듈화된 A’(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기타 서포트된 촉매’로 보아 제 3815.19-9000 호로 품목분류하여 한-중 FTA 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처분청은 2023.3.2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의 통관과정에서 현품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물품이 ‘모듈 형태의 기체용 여과기 부분품’으로 제 8421.99-9099 호(FCN1 0.8~3.2%)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고, 2023.6.2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고의로 저세율이 적용되는 제 3815.19-9000 호로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부정한 행위로 제 3815 호로 분류하여 세액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 42 조 제 2 항에 따른 부당과소 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적용하여, 2023.8.16.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합계 000 원을 경정. 고지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위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청구법인 신청에 따라 실시된 컨설팅 보고서 등에서 비추어 청구법인은 모듈화 여부에 따라 품목번호에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모듈화된 물품과 그러하지 않은 물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등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번호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임

##### (3) 결정일

2024.04.22. (조심2023관0137)

### Ⅲ. 조세심판사례

#### 5.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자동차)을 수입하면서, 위·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은 것으로 보고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7.7.15.부터 2022.3.7.까지 독일 소재 수출자등으로부터 자동차 15 대(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한·EU FTA 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나. 처분청은 관세조사 실시 결과, 당초 수출자등이 발행한 원본송품장에는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원본송품장에 허위로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를 삽입하여 원산지신고서인 것처럼 위·변조(이하 위·변조된 송품장을 “쟁점송품장”)한 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다. 처분청은 2023.4.1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 6 조, 「관세법」 제 270 조, 「형법」 제 231 조 및 제 234 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44 조 위반으로 고발·송치한 후, 2023.11.15.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하였음.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처분청의 압수수색,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등을 통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송품장을 정당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어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 (3) 결정일

2024.04.11. (조심 2024 관 0037)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등 3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Other, Pasta ; 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② Pasta;;Bevel square type ③ Pasta, cooked; Pororo pasta
물품 설명	밀가루(또는 감자전분) 주성분에 첨가물을 혼합하고 반죽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든 스낵용 중간 조제품
HS CODE	- 변경 전 : ①,② 제 1902.19-9000 호 (기본 관세 5%) ③ 제 1902.30-9000 호 (기본 관세 5%) - 변경 후 : 제 1901.20-900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스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최종 조리하면 유연하지 않으므로 파스타가 아닌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으로 보아 제 1901.20-9000 호에 분류 (2024 년 제 2 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5.29.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2. Frozen Tilapia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Frozen tilapia fillet, prepared or preserved; KS TAIWAN TILAPIA
물품 설명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된 냉동한 틸라피아 피레트
HS CODE	- 변경 전 : 제 1604.19-9090 호 (기본 관세 20%) - 변경 후 : 제 0304.61-0000 호 (기본 관세 10%)
변경 사유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제 0304.61-0000 호에 분류 (2024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5.29.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3. Frozen squid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Prepared or preserved squid (Loligo spp), frozen ② Squid(Todarodes pacificus), prepared or preserved, frozen
물품 설명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냉동오징어(① Loligo spp, ② Todarodes pacificus)
HS CODE	- 변경 전 : ① 제 1605.54-2099 호 (기본 관세 20%), ② 제 1605.59-9090 호 (기본 관세 20%) - 변경 후 : ① 제 0307.43-2010 호 (기본 관세 10%), ② 제 0307.43-2090 호 (기본 관세 20%)
변경 사유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① 제 0307.43-2010 호, ② 제 0307.43-2090 호에 분류 (2024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5.29.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4. Frozen piddock meat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Prepared or preserved piddock meat slice, frozen
물품 설명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갈매기 조갯살
HS CODE	- 변경 전 : 제 1605.59-9090 호 (기본 관세 20%) - 변경 후 : 제 0307.43-2090 호 (기본 관세 20%)
변경 사유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제 0307.43-2090 호에 분류 (2024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5.29.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5. Body scale with balance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BLUETOOTH SCALE FOR BODY WEIGHT ; MD-BODYSCALE ② Body scale with balance fun ; BS-F301 ; 300*260*25mm
물품 설명	체중 측정(감량 50 밀리그램 초과)과 체내 성분 측정하는 기기
HS CODE	- 변경 전 : 제 9031.80-9099 호 (기본 관세 0%) - 변경 후 : 제 8423.10-000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체중 측정(감량 50 밀리그램 초과)과 체내 성분 측정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체중기에 있으므로 제 8423.10-0000 호에 분류 (2024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5.29.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6. 식물성 유지 혼합물 4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Other vegetable extracts; OLEUM MAC. ALLII SATIVI E BULB. 1:1; GERMANY ② Compound extract; 용운보양단; R.KOREA ③ Compound extracts; 오색단-ols; R.KOREA ④ Camellia japonica flower extract; R.KOREA
물품 설명	식물성 유지의 혼합물(①식용, ②~④ 화장품 제조용 원료)
HS CODE	- 변경 전 : 제 1302.19-9099 호 (기본 관세 8%) - 변경 후 : ① 제 1517.90-9000 호 (기본 관세 8%) ②~④ 제 1518.00-909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추출물이 아닌 식물성 유지의 혼합물이므로 제 1517.90-9000 호에 분류 (2024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5.29.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7. Sponge dish scrubber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Kitchenware Scrubbers
물품 설명	폴리우레탄 스폰지로 만든 수세미
HS CODE	- 변경 전 : 제 3924.10-0000 호 (기본 관세 6.5%) - 변경 후 : 제 3924.90-9000 호 (기본 관세 6.5%)
변경 사유	위생을 위해 가정에서 식기를 세정하는 수세미이므로 제 3924.90-9000 호에 분류 (2024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5.29.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8. Air Filter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ASSY A-0001
물품 설명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부직포를 절곡하여 만든 내연기관용의 에어필터
HS CODE	- 변경 전 : 제 5911.90-0000 호 (기본 관세 8%) - 변경 후 : 제 8421.99-901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내연기관용의 흡입에어필터인 여과기(제 8421 호)에 장착되는 프레임을 갖춘 필터이므로 제 8421.99-9010 호에 분류 (2024 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5.29.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9. Cabin air filter element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사출 type filter ass'y ②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abin air filter; AK359365-S082-0-BDGG
물품 설명	절곡한 부직포로 만든 필터 엘리먼트(캐빈필터용)
HS CODE	- 변경 전 : 제 8421.99-9099 호 (기본 관세 8%) - 변경 후 : 제 5911.90-000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이물질 등을 걸러주기 위한 캐빈필터 엘리먼트이므로 제 5911.90-0000 호에 분류 (2023년 제 3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 5911.90-0000 호 결정사항, 2024년 제 2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변경고시 결정사항)

## 시행일

'24.05.29.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10. Window glass for smartphone 8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Tempered safety glass; GLASS WINDOW; TEMPERED GLASS EF48S; 71.7 mm×138.6 mm×0.7 mm(T); PR.CHNA ②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 M0704-000262 , ALKON-TD (GT-S5698) ③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 M0704-000191 , ALKON (GT-S5690) ④ MAIN WINDOW(MU61-S00465) ⑤ Cover Glass ; AMS497DX20 ⑥ Glass Window(모델:IP6 4.7inch AF) ⑦ Glass Window(모델:IP6 5.5inch AF) ⑧ Window Touch Panel; MELIW-00G05-00; 165.12×85.52×0.55 MELIUS GLASS (WHITE); CHINA
물품 설명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원도우글라스로, 투명한 강화유리 원판을 제품 형상에 맞게 절단,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Black Matrix)로 인쇄한 물품(전기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
HS CODE	- 변경 전 : 제 8517.70-1029 호 (기본 관세 0%) - 변경 후 : 제 7007.19-100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WCO 제 72 차 HS 위원회 승인된 HS 분류의견서('23.9 월) 국내 수용 (제 2024 년 제 2 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5.29.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1. 태블릿 PC 용 Window glass 3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Window Glass For Tablet PC; 8.3 ASGARD; PR.CHNA ② Window Glass For Tablet PC ; MAIN WINDOW ; ③ Main Window(USE : Tablet); PR.CHNA ④ Window Glass For Tablet PC; CHINA ⑤ GORILLA LENS ⑥ UNVC11 LENS ⑦ FLEMING GLASS LENS ⑧ COVER WINDOW FOR TABLET PC ⑨ GLASS WINDOW(GT-N8000)
물품 설명	태블릿 PC 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윈도우글라스로, 투명한 강화유리 원판을 제품 형상에 맞게 절단, 홀가공한 후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Black Matrix)로 인쇄한 물품(전기 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
HS CODE	- 변경 전 : 제 8473.30-9090 호 (기본 관세 0%) - 변경 후 : 제 7007.19-100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WCO 제 72 차 HS 위원회 승인된 HS 분류의견서('23.9 월) 국내 수용 (제 2024 년 제 2 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5.29.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12. Window glass for monitor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Window Glass; ET63
물품 설명	모니터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윈도우글라스로, 투명한 강화 유리 원판을 제품 형상에 맞게 절단·홀가공한 후 IR(Infra-red)인쇄하고,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Black Matrix)로 인쇄한 물품(전기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
HS CODE	- 변경 전 : 제 8529.90-9929 호 (기본 관세 0%) - 변경 후 : 제 7007.19-100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WCO 제 72 차 HS 위원회 승인된 HS 분류의견서('23.9 월) 국내 수용 (제 2024 년 제 2 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05.29.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1. 미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미국 상무부는 5월 2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 기업의 경우 알백 0%, 신양 2.42%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였고,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산정하였다.

\*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 주요국 덤핑마진: (중국)4.91%~376.85%, (멕시코)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

금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어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당초 제소자가 주장한 덤핑마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66.4%→2.42%),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직후부터 관련 업계와 간담회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상무부장관에게 서한을 발송(2024.3.5.)하고 수차례 고위급 면담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정부는 동 조사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2.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2차 공식협상 열려

#### - 상품, 서비스 등 시장개방 및 공급망 등 경제협력 방안 협의

우리나라와 몽골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5.21.(화)~23.(목) 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다.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을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데쉬 바트후(Idesh BATKHUU) 경제개발부 사무차관이 이끄는 몽골 정부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원산지, 지재산, 협력, 환경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제2차 공식협상에서 양측은 작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협상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분야별 쟁점을 정리하고 입장차 해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몽골 EPA 체결 시 우리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개선과 현지 한류를 활용한 현지 서비스시장 분야 진출 확대가 기대되며, 몽골 또한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편중된 경제의존도를 완화하고 교역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구리, 텅스텐, 우라늄 및 원유 등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세계 10대 자원 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되고 있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3. 해상물류 운임비 상승추세에 대응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확대 착수

- 하반기 수출바우처 조기 시행과 함께 단계별 대응 매뉴얼 2단계 조치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희망봉 우회 지속, 글로벌 물동량 증가 등으로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1월 홍해 지역 물류난에 대응하여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플랜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 상하이 운임지수 추이(SCFI, pt) : 1,000('23.11.17) → 2,240(1.19) → 1,770(4.19) → 1,941(4.26) → 2,306(5.10) → 2,521(5.17) → 2,703(5.24)

## &lt; 단계별 대응 매뉴얼 &gt;

- ❶ 1단계(현 시행중, ~2,700p)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한도 긴급 확대(2천→3천만원),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36억원), 중소 전용선복 제공,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
- ❷ 2단계(추가조치, ~3,900p) 하반기 수출 바우처(31억원) 조기 투입, 중소 전용선복 추가 지원 등
- ❸ 3단계(비상대응, 3,900p이상)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금번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는 5.27일부터 6.10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주, 북유럽, 지중해 등 주요 노선별 선복 수요와 더불어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추가 노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지원.사업 - 수출입 물류포털 - 물류 동향 및 정보

정부는 지난 1월 무역협회, 국적선사(HMM)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전용선복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여 주당 약 156TEU 규모의 전용 선복을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금번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추가 전용선복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원절차 : 노선별 수요조사 → (실수요)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 선사간 계약 체결

아울러, 산업부는 해운·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사업이 조기에 시행(6월, 잠정)될 수 있도록 모집공고·평가 등의 지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중에 있다.

\* 1단계 조치시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한도 기 확대(2천만원→3천만원)

산업부는 향후 해상운임이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물류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4. 모든 수입식품 통관신고, 5분 이내 처리

-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까지 서류 자동심사 적용 확대
- 현장의 전자심사24 조기 적용 요구를 반영하여 1개월 앞당겨 추진
- 영업자는 수입식품 검사·통관 시간 단축과 물류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꼽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5월 20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자동 신고수리 대상 요건) ①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이면서 ②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③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 (기존) 식품첨가물, 농·축·수산물에만 적용

전체 수입신고의 약 41%를 차지하는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전자심사를 적용하게 되면,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24시간 가능하고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48시간→5분 이내)된다. 이를 통해 영업자는 식품 수입 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신속하게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를 하기 위해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자동화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 전자심사 시스템 시범운영('22.11.~'23.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23.6월)

## &lt; 전자심사24의 수입신고 처리체계 &gt;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시스템이 최초 수입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리되어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로 수행

\*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한 경우 수입식품 검사관이 재확인하는 절차 수행

식약처는 올해말까지 수입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자동 심사·수리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입 영업자가 오류없이 원활히 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요령을 교육·홍보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등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5. 식약처,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 확대

##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시범운영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품목허가 변경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을 5월 3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에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횰약품에 대해서만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확대하며, '24년 12월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후 평가·검토를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등으로 '23년 기준 약 2,805품목이 해당

<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대상 >

구분	기존	확대
대상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 바이오횰약품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횰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확대가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운영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된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방안」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6. 식약처, 위생용품 분야 국외 시험·검사 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7월 15일까지 의견수렴,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http://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31일 입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❶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 분야를 위생용품까지 확대\*하여 위생용품 수입 시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라 지정된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하면 국내 통관을 위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7개 → (개정) 기존 7개 + 위생용품 추가 총 8개

❷ 또한,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검사 기관 지정신청서 제출 시 기관명, 소재지 등에 대한 영문 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영문 지정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❸ 그 외에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해당 기관에서 시험·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기 품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서 항목을 개정한다.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고시('23.5.12, 시행 '23.11.13)에 따라 의료기기의 위해도 및 제조공정을 고려한 품목군 확대(26개 → 64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외 시험·검사 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험·검사 분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7.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 발간

- 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정확한 정보제공
- 영업자, 평가기관 등의 다빈도 문의사항을 모아 주요 질의·응답 구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업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등 업계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5월 31일 '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발간·배포했다.

\* 주문자상표부착(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수입식품등 :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해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가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OEM 수입식품등 제도 연혁 ▲OEM 수입식품등 수입현황 및 영업자 준수사항 ▲현지 위생평가 절차·방법 및 판정기준·조치 ▲현지 위생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주요 질의·응답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영업자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자주 묻는 사항을 모아 내용별로 정리해 구성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보다 원활한 업무를 수행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수출국 현지에서의 사전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 누리집([www.mfds.go.kr](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8. 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 2023년 1년간 약 26만 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 ‘장비-인력-시스템’ 3박자 통관 인프라 구축해 해외직구 위험관리 역량제고
- 초저가 해외직구 물품 안전성 분석 확대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내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불법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 &lt; 통관단계 검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 &gt;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 대비 집중검사 등을 실시했고,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해 성분분석을 진행했다.

## &lt; 해외직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gt;

관세청은 작년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lt; ‘감시장비-검사인력-시스템’ 통관 인프라 3박자 구축 &gt;

관세청은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해 12월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롭게 구축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26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될 예정이다.